

저가 커피전문점 '삼중고'

우후죽순 창업
원자재값 인상
가격인상 부담



올 11월까지 광주에만 351개 창업...25% 테이크아웃 전문 소형매장
최근 창업 후 3년 내 폐업한 카페 103곳...1년도 못 버틴 가게도 71곳
커피 수확량 급감·물류비용 오르며 원두 값 전년비 2배 이상 올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올해 광주에서 하루 1개 이상의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업한 카페 10곳 중 2~3곳은 33㎡(10평) 이하 소형 점포로, 코로나 사태에 따라 포장과 배달문화가 확산하면서 저가의 커피 매장 창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가 커피전문점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커피전문점은 351개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만 하루에 1개의 카페가 새로 생긴 셈이다.

또 지난해 324개의 커피전문점이 새로 문을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가 촉발하기 전인 2019년(361개)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올해 카페 창업 분위기는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카페 매장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창업한 카페 중 면적이 10평 이하인 소규모 점포는 86개로 전체의 24.5% 수준이었다. 작년 24.1%(78개)과 2019년 21.9%(79개)과 비교해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카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몰고온 포장·배달문화가 확산한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매장 규모가 크지 않아 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 등 상대적으로 창업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소형 카페 창업 열풍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소형 카페 상당수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2000원 안팎의 저가 커피전문점인 탓에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주요 상관마다 카페 매장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 새 창업한 뒤 폐업한 커피전문점은 103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16.8% 수준으로, 커피전문점 10곳 중 1~2곳은 3년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가게 역시 같은 기간 6.9%(71개)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커피 원두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당장 우유가격도 오르면서 저가 커피전문점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기후로 인해 커피 수확량이 급감하고, 물류비용마저 오르면서 올 들어 원두 값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또 원유 가격연동제로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되면서 우유업계가 5~6% 상당 제품의 가격을 올린 것도 카페 업계에는 치명적인 요소다.

박진석 컨설팅그룹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이사는 "저가의 커피를 파는 매장이 당장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손님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며 "워낙 단가가 낮은 탓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등 선택의 기로에 선 이들의 고충은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저가의 소규모 카페가 이미 포화상태인 레드오션 업종으로 경쟁이 치열해 카페 창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페페트병으로 만든 리젠, 트렌디한 모던 한복으로 재탄생

효성티앤씨, 리슬과 협업
혁신현장투어 행사서 공개

효성티앤씨의 페트병 리사이클 섬유인 리젠(regen®)이 생활 한복으로 탄생했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전북 전주시 전주사회혁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 행사에서 리젠으로 만든 한복을 처음으로 실물 공개했다.

리젠은 효성티앤씨가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폴리에스터 섬유 브랜드다. 효성티앤씨는 이날 모던한복 브랜드 '리슬'과 함께 친환경 섬유로 만든 한복 10여종을 전시했다.

'리슬'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제작해 한복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패션 스타트업이다.

김용섭 효성티앤씨 대표는 "한복에 페트병 리사이클 섬유를 적용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페트병도 한국 고유의 맛을 살리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젠제주, 리젠서울, 리젠오션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국내 대표 친환경 섬유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아울렛 남악점 5주년 고객감사 행사

15일까지 경품·할인전 등 다양

개점 5주년을 맞은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오는 15일까지 다양한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는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총 10명을 선정해 제주도 크루즈 여행권과 쇼핑지원금을 주는 경품 행사를 벌인다.

주말이 포함된 오는 10~12일에는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 손잡이(그립톡) '하이'를 선착순 증정한다. 고객과 함께 하이파이브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이

제품은 지역 청년작가 정민정씨와 협업해 만들었다.

이외 오는 8일까지는 발렌시아, 리본, 보니스파크,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등이 참여하는 할인전이 진행된다.

9~15일에는 모조에스핀, 스위트미스, BCBG의 겨울 상품전이 열린다. 11~12일 제휴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

김병일 롯데아울렛 남악점장은 "전남 서남권에 최초로 오픈한 쇼핑공간인 남악점은 지역민

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쇼핑공간을 조성해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담양 수공예품에 빠지다

/*광주신세계 직원이 담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추향담' '뮤지움재희' 브랜드 수공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역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광주신세계가 마련한 이 매장은 오는 8일까지 1층 행사장에서 운영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3.25 (+4.92)
▼ 코스닥	991.87 (-6.60)
▲ 금리 (국고채 3년)	1.865 (-0.035)
▲ 환율 (USD)	1183.00 (+2.90)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